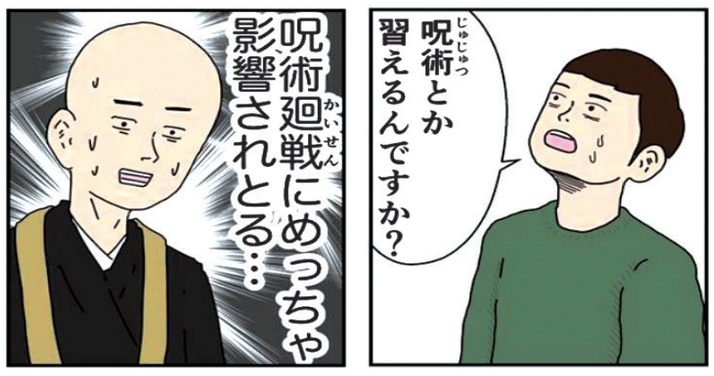
스님이 그리는 만화, 일본서 인기

워커플러스 8월 25일 만화 인기 소식 전해

정토진종 요시 유키 스님 '콘도마루' 필명으로 연재 불교에 일상의 경험 담아

박영빈 객원기자



스님이 연재하는 만화의 한 장면. 사진출처=워커플러스

스님이 그리는 만화가 일본에서 인기다. 8월 25일 일본 '워커 플러스'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전하는 스님의 만화가 독자들의 반향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콘도마루'라는 필명으로 활동 중인 콘도 요시유키 스님은 정토진종의 스님으로 지난해부터 만화를 연재해 오고 있다. 스님은 "본래는 종립학교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불교를 가르치는 교법사로 근무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싶어 퇴직 후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만화로 불교의 메시지를 전할 생각을 한 배경으로 스님은 "본래 만화를 좋아하기도 했고, 수업 중에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을 하곤 했다. 그때 학생들이 흥미를 보이는 것을 보고 더욱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콘도 스님의 만화는 일반적인 불교만화와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진행된다. 스님의 만화는 교리나 불경의 내용을 풀어서 전하는 것만이 아닌 스님 개인의 경험에서 오는 일상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그려진다.

콘도 스님은 "젊은 사람들이나 일반 대중들은 불교의 교리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 단지 교리나 불경의 내용을 쉽게 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듣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스님의 만화에서 가장 많은 반응을 얻고 있는 작품은 '양아치와 주지스님'이라는 시리즈. 일반적인 전개라면 스님이 교훈을 주는 내용이겠지만 스님은 색다른 시도를 가했다. 불교를 너무나 좋아하는 젊은 불량배가 반대로 스님을 훈계하는 전개로 진행된다. 해당 작품에 대해 콘도 스님은 "여기서 등장하는 주지스님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인물, 양아치는 지식은 적지만 실천하는 인물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 시리즈에 대해 "실제로 교법사로 활동하던 때의 에피소드가 많이 담겨있다"며 웃어 보였다.

또 최근에는 백중기간의 체험을 주제로 삶의 무상함에 관한 만화를 게재했다. 스님은 "백중기도를 하다보면 의외로 많은 가정이 젊은 가족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음을 알게 된다"며 힘들지만 또 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함께 공유하며,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만화로 전했다.

한편 댓글이나 독자의견 등으로 받은 질문이나 내용을 답하는 형식의 만화도 연재 중이다. 최근 연재한 에피소드에선 불교학교에 대해 소개하는 스님에게 어린이가 "불교학교에선 스님이 주술이나 마술을 배우나요?"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 내용이 등장했다. 스님은 "최근 TV에서 방영하는 인기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스님 캐릭터가 학생으로 등장해 주술을 쓰다고 한다. 이 만화를 게재했을 때 다양한 세대의 감상들이 도착했다"며 다양한 세대들의 응원을 받아 기쁘다고 밝혔다. 현재 스님은 연재한 만화들을 모아 내년에 단행본으로 출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中 사찰, 배달 플랫폼 투자 논란

사찰 측은 '스타트업 순수 지원' 주장



상하이 위푸스 전경. 사진출처=글로벌 타임스

중국 상하이에 소재한 유명고찰 위푸스(玉佛寺)가 보시금을 이용하여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재기됐다. 8월 27일 중국 '글로벌 타임스'는 위푸스가 유명 배달 플랫폼 운영에 투자했다며 중국 누리꾼들의 반응을 보도했다.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관광 전문 블로거 '허허'는 8월 21일 중국SNS인 웨이보에 "상해의 유명 사찰이 코로나 시기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시자들을 대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의혹을 제기했다.

게시물에서는 사찰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찰이 위푸스임이 드러났다.

한 기업가는 "상하이의 위푸스는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믿을만한 투자자로, 위푸스는 이미 10년 전에 배달 서비스 플랫폼 기업인 '어러머(Eleme)'에 투자한 바 있다"고 밝혔다.

허허의 게시물로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선 사찰의 기업투자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사찰의 투자는 사찰경영의 일환이라며 지지했지만 다른 누리꾼들은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에 나서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중국의 많은 사찰들이 상업화된 것처럼 위푸스의 기업투자도 선한 동기로 시작하지만 부패로 점철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위푸스 측은 "투자는 2009년 상하이시와 함께 재단을 설립해 지원한 창업지원 프로젝트"라며 "이 재단은 2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위푸스 프로젝트는 투자가 아닌 스타트업 재정지원"이라고 반박했다.

또 논란이 된 어러머 투자에 대해서도 "어러머에 대해 재정 지원 또한 프로젝트 일환"이라며 "주식이나 투자배당을 받지 않는 순수 재정지원"이라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보리수 묘목, 호주로 전해지다

호주 정부 외래종 검역 중 1년후 벤디고 대탑에 식재



스리랑카에서 이운되고 있는 보리수 묘목. 사진출처=ABC 뉴스

2300년전 스리랑카로 전해졌던 부처님 보리수가 다시 호주로 전해졌다. 8월 26일 호주 'ABC 뉴스'는 스리랑카에서 전달된 신성한 보리수 묘목이 검역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나무는 초기불교시대부터 예경의 대상으로 여겨져 온 식물이다. 학술적으론 뽕나무과 무화과속에 속하는 핍팔라(pippala)나무로, 이중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보드가야의 마하보디 사원의 나무를 보리수라고 특별히 이른다.

하지만 보드가야 보리수는 여러 차례의 전란으로 소실돼 부처님 당시의 나무가 아니다. 보드가야를 비롯해 불교 성지 곳곳에 식재된 보리수들은 BC 245년 아쇼카 왕이 부처님의 보리수에서 묘목을 얻어 스리랑카로 전달한 보리수에서 다시 묘목을 얻은 것이다.

현재 스리랑카 아누다라푸라(anudharapura)의 스리 마하보디 사원(Sri Mahabodhi temple)에 심겨진 보리수가 바로 그 나무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그 보리수와 가장 가까운 나무이다.

이번에 호주로 전해진 보리수 묘목도 바로 이 아누다라푸라의 보리수에서 묘목을 얻은 것으로, 약 1년간의 검역을 거친 후 벤디고(Bendigo)에 소재한 '세계자비의 대탑(Great Stupa of Universal Compassion)'에 식재될 예정이다.

세계자비의 대탑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인 이안 그린은 "불교가 탄생한 바로 그 자리인 보리수는 불교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보리수를 모시기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었지만, 보리수의 가치는 단순한 돈 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자비의 대탑은 국제 티베트 불교단체인 '대승불교유지재단(FPMT)'이 주도해 건립하고 있다. 티베트식 대탑을 중심으로 세계의 여러 종교 간의 평화와 자비를 상징하는 정원과 사원들이 함께 건립된다.

보리수는 이중 스리랑카 불교를 상징하는 사원인 보디왐마 위하라(Bodhi Vammma Vihara)에 식재될 예정이며, 스리랑카 이주민 불교공동체가 이운과 식재, 관리를 담당한다.

이안 그린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바로 그 나무는 파괴됐지만, 그 직계후손이 2,300년간 스리랑카에 살아남아 지금도 건재하다는 것은 불교도들에게 그 무엇보다 감동적인 이야기"라며 보리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스리랑카에서 이운된 보리수 묘목은 호주의 식물검역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대탑 측은 "보리수는 지난 5월에 무사히 도착했다. 그러나 검역문제로 흙이 제거되어 뿌리가 드러난 묘목으로 전달됐다"고 전했다.

검역당국의 최고 책임자인 비비안 스미스 박사는 "처음 보리수를 보았을 땐 마치 앙상한 나무 막대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생명력을 회복했고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고 전했다. 비비안 박사는 "묘목은 생물보안상 매주 해충과 질병에 대한 검사를 받고 있다. 본래라면 좀 더 빨리 불교계에 전달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강화된 검역으로 내년 5월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탑 측은 "묘목에 대해 오직 걱정되는 것은 무화과속에 속하는 보리수가 호주의 겨울을 날 수 있는 지"라며 내년의 식재 법요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印불교단체, 불교문화위 창설 나서

'붓다바남 프로젝트', 8월 30일 정부에 요청



락스마이아는 인도 관광부 장관인 키샨 레디(가운데)에게 국립 불교문화유산위원회 창설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 사진출처=더 힌두

8월 30일 인도 유력 매체 '더 힌두'는 인도 불교단체인 '붓다바남 프로젝트(buddhavanam project)'가 인도정부를 상대로 '국가 불교문화 위원회'를 창설할 것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붓다바남 프로젝트는 남중부 인도의 텔랑가나주에 소재한 불교문화유산인 '나가르주나 사가르(Nagarjuna Sagar)'의 개발과 보전을 위해 설립된 단체다.

붓다바남 프로젝트의 특별책임자인 말레팔리 락스마이아는 인도 관광부 장관인 키샨 레디에게 국립 불교문화유산위원회 창설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락스마이아는 "인도의 수많은 주(州)에 수백 개의 불교 유적과 기념물이 분포해있다. 이는 인도의 불교문화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인도의 불교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련된 연구와 출판, 보급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립 불교문화유산위원회 창설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붓다바남 프로젝트 측의 집계에 따르면 인도 전역에는 724개의 불교 유적지가 있으나, 이중 제대로 발굴, 보존되고 있는 곳은 392개소로 밝혀졌다.

락스마이아는 "위원회 위원장과 이사들은 반드시 저명한 스님이나 불교기관장과 같은 불교도가 맡아야 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위해 대학기관의 연구자나 고고학자등의 전문가들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붓다바남 프로젝트는 "인도 국내외 불자들의 견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등한시 되어온 불교 유적지, 기념비, 문학, 문화유산을 문서화하고 명백히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농업 다음으로 인도 경제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생명존중·자살예방 '몸·마음·쉼' 사업

명상으로 함께하는 '2021생명살림 법회'

불교상담개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인
명상으로 함께하는 '2021 생명살림 법회'(조계사)를
BBS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합니다.

◈ 내 용 : 화두명상을 활용한 생명살림법회
◈ 법 사 : 남전스님(조계사 선림원장)
◈ 방송일시 : – TV : 9월 7일(화) 19:30 / 9월 8일(수) 12:30 / 9월 11일(토) 15:30
– 라디오 : 9월 12일(일) 10:00

※ 본 법회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주 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제9회 묘엄불교문화상 후보공모

고(故) 세주 묘엄 명사스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에서는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 표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공모기간 2021년 9월 10일(금) ~ 10월 20일(수)

시상내역 2명(또는 단체), 각 상장 및 1천만원 상금

추천자격 및 선정기준
1. 불교교육, 포교, 수행, 불교학술, 불교예술 등의 분야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의미 있고, 뛰어난 활동을 다년간 지속해온 결과, 불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로서, 그 활동으로 인해 최근 5년간 다른 기관(재단)으로부터 수상한적이 없는 후보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2. 단체는 설립된 지 5년 이상이고, 회원 3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하며, 근거자료와 함께 그 동안의 활동업적이 첨부돼야 한다.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 접수양식 :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에서 다운로드 (http: //cafe.daum.net/myoeom.org)
• 접 수 처 : 46292 부산시 금정구 금정로 42(장전동) 문화공간 봄(BOMM) 2층 윤종갑 교수
• 문 의 : 사무국장 윤종갑 010-2314-2722 greencw@hanmail.net
※자세한 사항은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 참조

수상자 발표
• 개별통지 후 재단 카페에 공지
• 시 상 식 : 2021년 12월 10일(금) 오전 10시 수원 봉녕사 대법당 세주 묘엄 스님 제10주기 추모다례재일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 사무국